

실개울 따라 흐르는 추억

이 상 하

내가 태어나 처음 살던 곳은 지금의 이곳과는 사뭇 달라서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한 밤중에 우는 새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해질 무렵 실바람 같은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도 볼 수 없었다. 청주의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서 살다가 7년 전인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 가족은 지금의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을 뒤따르게 하고 도착한 빌라 마당에는 몸빛이 검은 먹 잠자리와 빨간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높푸른 가을 하늘을 떼지어 나는 잠자리들은 먼데 두고 온 그리운 친구의 얼굴조차 금세 잊게 만들었다. 집 뒤로는 소나무가 우거진 작은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무심천으로 합류되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개울 뒤로 정답게 자라나는 곡식으로 가득한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어쩌다 그 개울 앞에 서서 들판을 마주하고 있을 때면 들판을 가로질러오는 바람에서 흙냄새, 물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바람에서 냄새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

실개울을 따라 피어 있는 개망초, 원추리, 미나리 등의 풀을 보면서 동생들 등에 업은 엄마의 손을 잡고 ‘혜은사’ 절 쪽으로 십여 분쯤 걷다 보면 큰 느티나무 아래 옛날 빨래터에 다다른다. 모서리가 닳아 둥글납작해진 빨랫돌에 앉아서 골짜물에 물장난을 치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다.

여름 장맛비가 지나가고 개울물이 종아리까지 차오를 때면 아빠는 파리낚시로 피라미를 잡으시고, 나는 동생과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개울에 들어가서 팔랑팔랑 뛰어 다녔다. 그러다가 옆집에서 풀어 키우던 오리 떼를 쫓기도 하고, 물속을 뒤흔드는 백로를 흥내내며 여름 한철을 보냈었다.

봄바람과 뭉게구름, 등지튼 들새의 날갯소리와 깊은 가을밤 귀뚜라미 노랫소리 모두를 재잘재잘 이야기하듯 집 앞에서 흐르던 개울이 최근 2~3년 사이에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

이번 여름에는 발등 위를 튀어오르던 등퍼런 개구리도, 뚜벅뚜벅 밤길을 걷는 두꺼비도, 심심찮게 출몰하여 동네사람들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던 뱀도

도무지 볼 수가 없었다. 전원주택 바람을 따라 우리 마을에도 많은 집이 들어섰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것 때문에 마을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시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언제인가부터 여름이면 개울을 정비한다고 굴삭기가 들어가서 바닥을 긁어내고 수초를 들어내서 개울 독 옆에 쌓아놓아 한여름 햇볕아래 말라버려지는 것을 보았다.

얼마 전, 지역 신문에서 무심천 상류 지역 일부인 고은다리에서부터 하류방향 250m 구간에 걸쳐 하도준설을 위해 하천에서 자라고 있는 수초와 모래톱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았다. 그곳은 인위적인 훼손이 거의 없어서 청정 1급수를 자랑하며, 다양한 물고기와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하천 양쪽에는 넓은 농경지가 있고, 부들이나 물억새 같은 수초와 수중생물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원앙 같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고은에 사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가던 길에 물병아리 따위를 보았던 생각이 난다. 무심천 상류 지역인 하천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서, 도시로 흘러드는 수중오염을 정화해 주는 데 중요한 수초가 잘 발달된 우리 고장을 준설작업으로 파괴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정부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한다.

집 앞 실개울은 무심천으로 흘러서 팔결천과 까치내에서 합쳐 미호천이 되고, 미호천은 금강을 따라 바다로 갈 것이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어린 날에 즐겼던 산과 들, 그리고 오솔길 따라 민들레, 제비꽃과 함께 흐르던 이 개울에 마음이 자꾸 끌린다. 아름다운 옛 이야기처럼 설레이는 기억이며 못 잊을 추억이다.

자연은 위대한 신이 우리에게 내리는 한량없는 축복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양을 바꾸고 무엇인가 만들어 내었다고 해서, 사람의 힘을 자랑할 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자연 속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축복이란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에 있다고 한다. 그럴 때, 우리들은 비로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관계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 하늘은 높고 초원의 말은 살피고 오곡이 무르익는 계절에 자연을 향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그대로 놓아 보자.